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8.20)

□ [주요 언론 동향]

- 환구시보는(环球时报)은 한국 매체를 인용하여 8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한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¹⁾
- 중미 무역 분쟁 격화로 중국은 RCEP과 한중일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일 경제 마찰을 주도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용 보도
 - *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 매체(日经亚洲评论)는 한일 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한국은 환영하겠지만 일본 측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 워싱턴은 두 동맹국 간 분쟁에 개입을 원치 않아 서울의 중재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제3자의 개입 없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음.
 - * 또한 일본은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對韓 수출규제나 한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일본기업의 입장(대법원 판결)에 대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은 한국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²⁾
-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외공개가 어렵다고 밝힘.

1) 「中日韩外长会明日举行 韩国寄望中国调解韩日争端」, 『环球网』(2019. 8. 20)

2) 「韩日军事情报协定将到期 韩方：尚未决定是否续签」, 『参考消息』(2019. 8. 20)

- 동 협정은 8월 24일에 만기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8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對韓 무역 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텐센트 과학기술(騰訊科技)은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7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실시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첨단소재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³⁾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는 반도체 산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일본이 한국에 화해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텐센트 과학기술은 이번 소식에 관련하여 삼성전자 대변인, 한국 무역부 대변인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함.
-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은 대다수 일본 기업이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무역 분야)을 지지한다고 인용 보도⁴⁾
- 로이터의 ‘월별 기업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75%가 아베정부의 對韓 수출규제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한국이 WTO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본이 승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4%에 달함.
- 또한 ‘무역규제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림.
- * 한국과 직접적인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둔화, 무역 갈등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함.

3) 「自对韩国采取出口限制以来, 日本第二次批准向韩国出口高科技材料」, 『騰訊科技』(2019. 8. 20)

4) 「外媒: 民调显示日企普遍支持安倍对韩国贸易强硬政策」, 『參考消息』(2019. 8. 20)